



자율준수 의지 메시지

세아특수강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이강현입니다.

2026년 병오년 (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성과를 향한 조급함이 원칙을 흐드는 유혹이 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준법과 윤리는 단순히 준수해야 할 '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아특수강이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얻는 신뢰의 근간이며, 그 어떤 기술력보다 강력한 우리의 본원적 경쟁력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세아특수강의 준법경영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해 다음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후 수습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조기 발견하고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안전과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누구나 주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당한 제보가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투명한 소통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무결성을 바탕으로 원칙을 수호하겠습니다. 모든 업무 영역에서 원칙을 지키는 무결성을 조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고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뢰는 '정직한 과정'에서 나옵니다. 단기적 성과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증명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2026년 우리는 또 한 번 변화의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서로를 믿고 합심한다면, 그 어떤 불확실성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강인한 기백으로 원칙을 지키며 거침없이 전진합시다. 저 또한 준법경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여러분의 올바른 실천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발걸음이 우리 조직의 미래를 만듭니다.

임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세아특수강 대표이사 **이 강 현**

